

우리가 무주농업 주역이다

농업경영인가족대회 성황 무풍면 유명만씨 등 표창

무주군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16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회장 최연주)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한농연 회원 및 가족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체육행사, 화합 한마당에 함께 해 우의를 다졌다.

기념식에서는 무풍면 유명만, 설천면 박희준, 부남면 지현영, 안성면 윤중기 씨가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적상면 신종진 씨가 무주군의회의장상을, 안성면 신봉수 씨가 중앙회장상을, 무풍면 박중하 씨가 도회장상을, 안성면 정재환 씨가 농어민신문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황 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큰 희망을 느낀다"며 "무주만의 특색이 배인 반딧불 농·특산물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무주군 농업경영인 가족대회가 16일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되고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의 열풍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위해 1987년 설립된 단체이며, 4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에서는 전북 농·특산물 큰 장터를 비롯해 전국농업경영인 도 농 큰 장터, 농업경영인 직거래 행

사,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 최연주 회장은 "무주군 연합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품목개발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기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류와 국가의 생존을 쥐고 있는 생명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주농업을 일으켜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봉동 '동그라미', 선덕보육원에 물품 전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완주 봉동 주공아파트 공동체 동그라미(서우정 대표)는 지난 1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선덕보육원을 방문해 손수 만든 천연비누와 액세서리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완주군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EM비누교실'과 '리본공예교실'에 참여한 주민 40여 명이 손수 만든 것으로 어성초비누, 클로렐라비누 등 아동용 비누와 머리띠, 머리핀 등 액세서리이다. 이 중에는 모기가 기피하는 천연허브향 '시트로넬라'를 첨가한 저자극성 비누까지 포함되어 아동의 건강까지 세심히 고려했다.

'리본공예교실'의 주민강사로 활동

중인 유미경씨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배운 솜씨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여한 주민의 호응이 높아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한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사회 불분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복원과 이웃사랑의 향기로 온 꽃을 피우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소를 넘어 완주군 소통의 촉매제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이번 행사에 동참하여 선덕보육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봉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는 16일 장수군에 1억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기아차 노사, 장수군에 생활용품 기탁

기아자동차 노사는 16일 장수군에서 사랑의 물품기탁과 나눔 행사를 펼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자동차 전무는 장수군수실에서 1억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장수군(군수 최용득)에 전달했다.

또한 기아자동차 노사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정부티삼, 관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으로 장수군 노인복지관에서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와 이마용, 의료봉사 등을 전개하며 참석 노인 200여명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관내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물품을 기탁하고 나눔 행사를 펼쳐준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원봉사자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장수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락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자동차 전무는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기탁 받은 물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읍면 경로당과 저소득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서 건의안 채택 의결

지난 16일 고창군의회에서 개최된 제 217차 정리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우천규) 월례 회의에서 무주군의회 이한승 의장(사진)의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 의결되었다.

이 의장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큰 행사를 앞두고 무주 태권도원 내 명예의 전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제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다"며, 태권도 성지 순례와 수련의 장을 조성하여 중추국의 위상을 제고하여 태권도원을 세계적 관광지원으로 개발한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명예의 전당은 태권도원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통 태권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세계 태권도인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태권도 한류 문화



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태권도대학 신설과 국가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 등 여러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가차원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추진 박차

부군수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16일 이근상 부군수(사진) 주재로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발굴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을 점검, 기재부와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국가예산 51개 사업에 대해 부처별 상황을 파악해 미반영 및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미반영 사유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되는 기재부 및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국가에

신안 최대의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근상 부군수는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이 심의 단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 국가예산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비몽 소농리 평치마을서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6일 바쁜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몽면 농리 평치마을 한 농가를 찾아 복분자 노복 제거 및 방울토마토 수확 등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일손돕기를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농촌고령화로 일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일손돕기를 지원해 준 우리지역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종혜 상하수도소장은 "앞으로도 농번기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적 일손돕기를 추진하여 농가에 실질적 일손도움이 되겠고 농촌일손돕기로 지역내 어울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6일 비몽면 평치마을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무주읍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 '눈길'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일환

무주읍 무주읍 주민자치센터가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은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대행하는 일을 한다.

무주읍에 따르면 관내 기관·사회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읍사무소로 전화 예약(322-3002)을 하면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처리한다.

처리 후에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등 민원인 편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읍주민자치센터 최현희 민원담당은 "사람이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

이라는 생각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와 전광판, 마을방송, 군 홈페이지, 군청 소식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구 3만 명을 목표로(2025년)로 무주군에서는 내 직장 내 주소 갖기를 비롯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영유아 양육지원 등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6월 15일 현재 무주군의 인구는 2만 5천 39명(무주읍 9,540명)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마이파출소, 우사 탈출 송아지 '주인품으로'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 마이파출소는 비가 내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지난 15일 오후 9시50분경 송아지 8마리가 국도 26번 도로상(진안읍 연강리)에 출현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여 주인에게 인계했다.

이날 신고를 접수한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경위 오형식, 경사 유창민은 도국상에 한우 8마리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속히 진출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경찰서 강력팀 및 타력대에 지원요청을 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순찰차량 이용 송아지

를 추사 방향으로 몰아 안전하게 주인에게 인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비가 오고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시간에 조금만 늦게 대처하였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신속한 경력 지원요청과 상황대처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 천만 다행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한편 송아지 소유자 김모씨는 "하마터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뻔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빼 놓지 않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 장마철 오염물질 단속

장수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7월말까지 장마철 집중강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1개소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이행 등 환경오염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및 취락지역에 대한 주변순찰을 실시하는 등 환경피해 우려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폐수 미처리 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최용득 장수군수, 공사장 안전점검

최용득 장수군수는 지난 14일 여름철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장'과 '금강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확인했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최용득 군수를 비롯하여 안전재난과장, 주민복지실장,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할 가운데 최 군수는 "현장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의 지하수 용출 및 침하 여부, 배수로 관리상태 등을 살펴보고, 사업장 내 재해위험지역, 절개지,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들에게 "우기 재해 위험지역 예방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비점오염원 조사 사업설명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공동대표 이충국, 김재승)는 16일 용담호 광역상수원 비점오염원 조사사업에 대하여 진안군, K-water 용담댐관리단, 협의체 임원 등 20여명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비점오염원 조사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환경보전협회의 위탁을 받은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가 용담호 주변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맡겨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비점오염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용담호 수질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읍,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교통관리계장 김덕상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운수업체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상대로 사전 안전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사업용차량에 의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용차량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운수업체를 방문한 교통관리계 교육·홍보 담당은 사업용차량 운전자 상대로 과속 운행 금지 및 신호위반·끼어들기·난폭운전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나 고속도로에서의 대열운행은 사고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예방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